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주간)

Korean Catholic Church Sunday Bulletin

2024년 11월24일(제2177호)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13-14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5-8	복음	요한 18:33-37
--------	------	--------------------	------	-----------------	----	-------------

온 우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삶

이제껏 많은 순간이 행복했습니다만, 여러 나날을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지낸 기억도 있습니다.

어둠던 그 시간은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과 시간들이 분명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며 고갯짓을 하고서 구태여 다른 길로 간 그때였지요.

이러한 부분이 저를 흔들어 놓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심겨진다는 것, 누군가와 살을 부대끼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공유하며 지낸다는 것. 이중 어느 것 하나 하느님의 계획과 그분 뜻에서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숭고한 '아버지의 마음' 을 미약한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부정하는 순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피하고 싶는데 아버지는 자꾸만 마주하라 하십니다. 나는 모른 채하고 싶는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선택하라 하십니다. 나는, 나를 옹호하는 듯한 이 멍에를 훌렁 벗어던지고 싶는데, 아버지는 다름 아닌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당신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라 이끄십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과 저편에 놓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좀처럼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 떨어져 있는데 마찰과 부딪힘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 우리 인간은 흔들리고 아파하고 이내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기억을 더듬어 고개를 들고서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 살아야겠다는 새 다짐을 뒤야겠습니다.

군중의 수군거림과 날카로운 손가락질. 궁궁이로 가득

찬 빌라도의 질문. 사람들의 거친 눈초리와 마구 쏟아지는 쫓대 없는 비난의 말.

형장은 이처럼 오해와 무지로 가득합니다. 그곳에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양다운 입술. 지그시 감은 눈. 고성이 난무하는 그곳에서조차 오롯한 마음으로 다소곳이 서 계신 주님. 이처럼 주님은 죽음으로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약함으로 강인함을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님! 내 삶의 왕이시라 고백합니다. 주님은 마련된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누군가가 꺼렸던 것을 끝없이 선택하십니다. 영적 멍에와 구원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십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온 우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 18,37)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자들은 많지만 선택된 자들은 적"은 것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겠으나 참 진리 속에서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적을 것입니다.

마찰과 부딪힘이 아닌 영광된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작은 것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11월26일(화)	연중 제34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 1,000.00
			교 무 금	\$ 1,420.00
11월27일(수)	연중 제34주간 수요일	오전 8시	성 물 방	\$ 87.00
			자 선 비	\$ 10.00
11월28일(목)	연중 제34주간 목요일 (추수감사절)	미사없음	성소후원	\$ 20.00
			교구2차헌금	\$ 643.00
11월29일(금)	연중 제34주간 금요일	미사없음		
11월30일(토)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3,180.00
12월1일(주일)	대림 제1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18명 성인: 166명
교무금 봉헌자	김응환.이승렬(11-12)김혜주(10-12)이정규(9-12)엄용덕(10)김선식.김주동.김창현(11)			

십자성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며 오른손으로 몸에 십자가를 긋는 행위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가장 공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십자성호’ (十字聖號)라 하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바치는 기도를 ‘성호경’ (聖號經)이라 합니다.

십자성호는 초세기 사도 시대 때부터 이어진 오랜 전통이자 준성사입니다. 곧 일곱 성사에 준하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교회는 십자가를 죽음의 형구가 아닌 구원의 표징으로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세기부터 십자성호를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세례 받은 이의 이마에 십자 표시를 하는 등 전례 예식에 도입됐고, 신자들이 개인 기도를 할 때나 서로 신원을 확인할 때 오른손 엄지로 이마나 가슴 등에 작은 십자를 긋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이것이 십자성호의 시작입니다.

4세기 성부·성자·성령의 동일한 위격을 부인한 아리우스파가 등장하자 교회는 이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동일한 본질을 갖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라고 정통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의 표징으로 이마와 가슴, 양어깨에 연결해 크게 십자가를 긋는 ‘큰 십자성호’ 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8세기 교회 안에 ‘단성론자’ 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될 수 없다며 예수님은 하느님의 본성 곧 신성만 지니신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참하느님이시며 참인간이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시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성호를 그을 때 엄지와 검지, 중지,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안으로 접어서 크게 십자성호를 긋기 시작했습니다. 세 손가락을 모은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두 손가락을 접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가 끝날 무렵인 13세기 말까진 동·서방 교회 구분 없이 십자성호를 이마에서 가슴,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그었습니다. 13세기 말부터 가톨릭교회는 동방 정교회와 달리 왼쪽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어깨로 긋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오른손을 펴서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중세 말 무렵 성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이

처음 한 것으로 이후 가톨릭교회 전체에 확산됐습니다.

십자성호는 ‘작은 십자성호’ 와 ‘큰 십자성호’ 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작은 십자성호는 이마와 입술, 가슴에 작은 십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큰 십자성호는 왼손을 가슴에 댄 채 오른손을 편 상태로 이마와 가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십자 모양의 성호를 크게 긋습니다.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이마에서 “성부와”, 가슴에서 “성자와”, 왼쪽 어깨에서 “성”, 오른쪽 어깨에서 “령의”, 두 손으로 모으면서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경을 외웁니다. 오른손은 하느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를, 이마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느님’ 을, 가슴은 인간으로 강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를, 왼쪽은 ‘죽음과 어둠’ 을, 오른쪽은 ‘빛과 진리’, ‘생명과 영광’ 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성호는 참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강생하시어 십자가 수난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어 아버지 하느님 오른편에서 앉아계시며 마지막 날 영광의 임금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가톨릭 신앙의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십자성호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냅니다.

십자성호는 매일 매 순간 바치는 기도로 하루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성호는 우리의 기도와 일을 하느님께 집중시킨다. 일의 시작과 끝에 바치는 십자성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요한 14,13)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십자성호는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을 증거합니다. 또 십자성호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세례성사때 받은 성령의 인호를 드러냅니다.

십자성호는 공허한 손짓이 아니라 교회의 보호자이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의 크고 작은 일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반드시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호경을 정성스럽게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굿뉴스 리길재 기자의 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 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아들 Shawn Hovey 영육건강	김평옥 모니카
연	김병길 베드로 영혼	김명희 수산나 가족	생	박성진.엄희수.최선옥.고공자.김영준 김옥륜.염상보.지동순.한복자 영육건강	연령회
연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 영혼	순교자들의모후Pr			
연	이규청 제노비아 영혼	이호영 호영베드로	생	이진환 영육건강	이영래 루치아
연	이금옥 영혼	이영래 루치아	생	(유아세례) 김윤준 레오 영육건강	김완기바오로가족
연	이재성 요셉, 이정은 수산나 영혼	이진행 베드로 가정	생	(유아세례) 김윤준 레오 영육건강	10구역
연	이순애 엘리사벳 영혼	박원상 토마스	생	임채봉 안드레아, 임실비아 영육건강	구비아
생	강우림 로사, 강재준 제이, 강랴이언 프란치스코, 강조던, 강로건 영육건강	류재순 마리안나 류승교 바오로	생	임채봉 안드레아, 임실비아 영육건강	이나숙 데레사
			생	박은경 안나 영육건강	박원상 토마스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본당 사목회

일시: 24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사목위원들 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일시: 24일(주일) 오전9시 주일학교 미사중
세례 대상: 김윤준 레오 (24년5월4일생)
- 부모 김완기 바오로, 김지안 소피아 (10구역)

3.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미사 안내

28일(목)~29일(금) 이틀간 평일미사 없습니다.
*** 30일(토) 특전미사는 있습니다.

4.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12/1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 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모공소) 미사

일시: 12/1일(주일) 성당에서 오후1시 출발
참여단체: 여성부/여성단체

6.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12/5일(목) 저녁8시. 성당
저녁7시(찬미) 저녁7시 30분(묵주기도)
저녁8시(미사, 성시간 및 안수예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 12/7일(토) 오전10시30분.성당
(일반 신자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에서 요셉회.안나회가 있습니다.

8.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일시: 12/8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모든 정단원/협조단원 께서는 참석 바랍니다.

9. 본당 구역미사 (1-1구역)

일시: 12/6일(금) 오후6시30분
장소: 윤여훈 로마노, 윤소영 세실리아(자택)

10. 본당 사무장님 모집 공고

본당 사무장님을 모집합니다.
봉사해 주실 분께서는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11. 구역모임 및 단체활동

1-2구역: 12/7(토) 시간/장소 추후공지
2구역: 12/14(토) 오후6시 장베로니카(덕)
5구역: 12/10(화) 오후6시. 사무라이
6구역: 12/15(주일) 오후6시 이종만 모세(덕)
7구역: 추후공지
9구역: 12/15(주일) 사랑의급식 후 친교실
10구역: 12/22(주일) 교중미사후 마태오방

복지부: 30일(토) 오후3시 홀리스음식준비/모임
12/1(주일) 오전8시반 홀리스 음식봉사

연령회: 12/1(주일) 교중미사후 사무라이 (송년모임)
울드레야: 12/21(토) 오후6시. 서주연 마리아 (자택)

12. 성탄 장식 및 본당 대청소

1) 성탄 장식: 12월초
- 관리부, 전례부 등 사목위원들 협조 부탁
2) 성탄 맞이 본당 대청소: 12/15일(주일)까지
- 각 단체/구역/주일학교 (담당:게시판 참조)

13. 성탄 판공성사 안내

대림시기(12/1~12/22) 동안 미사30분전에 볼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분들과 함께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표는 게시판 아래 비치)

14. 매일미사책 연간 구독 신청 (2025년)

가격: (대)\$120/1년 (소) \$84/1년
- 책값, 물류비 등 가격 인상시에는 차액을
납부하셔야 계속 구독이 가능합니다.
문의: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15. 사랑의 급식 안내

1) 11월24일 (주일): 김명희 수산나 가족
9/24 선종하신 김병길 베드로 형제님의
유가족 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점심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2) 12월1일 (주일): 7구역 (교중미사후)

16. 감사합니다.

사랑의급식 수익금(10구역): \$188 (도네이션포함)
사랑의 급식 도네이션: \$100 (김두황 다니엘)

화답송



전례봉사	그리스도왕대축일 (11/24)	대림제1주일 (12/1)	대림제2주일 (12/8)	대림제3주일 (12/15)
미사해설	박문교 / 정미정	곽유경 / 조용주	지혜진 / 김진영	오민정 / 이해련
독서	9시	제임스 / 윤지명	지마리 / 임가빈	곽아인 / 박예진
	11시	임정남 / 양방림	안강순 / 이서향	송돈희 / 정미정
복사	9시	김노아 / 김가윤	허준희 / 김가윤	지마리 / 임가빈
	11시	김규철 / 최준우	송돈희 / 김영준	김규철 / 박지은
헌금위원	천상의 모후Pr.	셋별Pr.	천상의 모후Pr.	셋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정비/수리/각종부품교환
바디 수리/판금/페인트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916-807-4886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업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업(바로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부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 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6509 Fruitridge Road
65th Street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